

# UAE 협력, 글로벌 시장 진출 가속화

### 전북자치도, 푸드테크42 얼라이언스... 글로벌 네트워크 확장·협력 강화

전북특별자치도는 24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주한 UAE 대사관과 공동으로 UAE-KOREA 식품 혁신 기술 협력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번 워크숍은 전북자치도의 푸드테크 산업과 UAE의 식량안보 전략을 기반으로 양국 간의 농업 및 푸드테크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글로벌 진출을 촉진하기 위한 자리였다.



이날 행사에는 압둘라 알 누에이미 주한 UAE 대사, 아부다비 농업식품안전청(ADAFSA) 및 아부다비 칼리파 경제구역(KEZAD) 그룹 관계자들이 참석했으며, 전북자치도에서는 최재용 농생명축산산업국장과 푸드테크 42 얼라이언스 관계자들이 함께했다.

이번 워크숍은 UAE의 농업 및 푸드테크 동향과 KEZAD 그룹의 UAE 시장 진출 가이드 라인 발표로 시작되었

트 제조(디지털 전환) 기술을 중점적으로 육성하고 있다. 지난해 출범한 푸드테크 42 얼라이언스는 전국 푸드테크 기업, 연구기관, 대학, 투자사 등과의 협업 네트워크를 구축하였으며, 주기적인 네트워킹 데이를 개최하여 회원사 간의 교류와 협력을 촉진하고 있다.

UAE는 '국가 식량안보 전략 2051'을 통해 2051년까지 세계 식량안보 지수 1위 달성을 목표로 식량 생산을 강화하고 있으며, 대체 단백질과 혁신농업 기술 등 혁신 기술을 육성하는 Agri food Growth and Water Abundance (AGWA) 클러스터를 올해 6월에 출범했다.

이러한 전략에 맞춰 전북자치도는 UAE와의 협력을 더욱 공고히 하여 글로벌 파트너십을 강화하고, 푸드테크

산업에서 세계적 경쟁력을 확보할 계획이다.

전북자치도는 지난해 11월 UAE 대사관이 주최한 '농업기술 및 식량안보 워크숍'에 이어 이번 'UAE-KOREA 워크숍'에도 단독으로 참석하여 UAE와의 협력 관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다.

특히, 최근 '푸드테크 42 얼라이언스'에 UAE 소재 Novel Foods(대체식품 개발), H111 투자회사 등 글로벌 기업까지 회원을 확대하여, 전북 푸드테크 기업들의 글로벌 네트워크가 더욱 확장되고 있다.

최재용 전북자치도 농생명축산산업국장은 "이번 워크숍을 통해 UAE와의 푸드테크 협력이 더욱 공고해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지속 가능한 농업 시스템 구축이라는 공동 목표를 향해 푸드테크 혁신을 선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만호 기자



전북특별자치도와 자동차 부품 기업들이 미래 모빌리티 산업의 중심에서 도약할 기회를 잡았다.

## '모빌리티 산업, 빛나는 전북자치도'

### 전북-경기 협업 1호, 미래 모빌리티 테크쇼 개최

전북특별자치도와 자동차 부품 기업들이 미래 모빌리티 산업의 중심에서 도약할 기회를 잡았다.

24일 경기도 평택시 KG모빌리티 본사에서 개최된 '2024 미래 모빌리티 테크 쇼'에 전북특별자치도 자동차융합기술원, 도내 7개 기업이 참가해 전북의 혁신적인 기술력을 선보였다.

이번 미래 모빌리티 테크 쇼는 전북특별자치도와 경기도의 협업 사업 1호로, 전북자치도, 경기도, 충남, 광주광역시 등 4개 지역의 중소 자동차 부품업체들이 참가해 100여 개의 전시관에서 부품과 소프트웨어를 소개하는 자리다.

이날 행사에는 KG모빌리티의 1차 부품 공급업체를 포함한 여러 중소 자동차 부품 기업들이 참여했으며, 한국자동차연구원, 충남테크노파크, 자동차융합기술원 등

관련 기관들도 함께 자리하여 산·학·연 협력체계를 공고히 했다. 이로써 전북의 자동차 부품업체들은 차세대 모빌리티 산업에서 경쟁력을 더욱 강화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

전북자치도 관계자는 "이번 미래 모빌리티 테크 쇼가 도내 중소 자동차 부품 업체들에게 판로확보와 시장 확장의 중요한 기회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전북과 경기도 간의 협력을 통해 국가산업을 공동으로 발굴하고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번 테크 쇼의 성공적인 개최를 계기로 전북특별자치도는 미래 모빌리티 산업의 선두 주자로 자리매김하고 지속적인 산업 협력을 통해 도내 중소기업들의 경쟁력 강화와 성장 발전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만호 기자

### 국민연금, 국내주식 위탁운용사 총 4개사 이내 선정 착수

국민연금공단(이사장 김태현) 기금 운용본부는 하반기 국내주식 위탁운용사를 선정할 계획이라고 24일 밝혔다.

이번 선정은 국민연금기금의 중장기 수익률 향상을 위해 장기성장형 및 책임투자형 부문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자금 배정 규모와 시기는 국민연금기금의 포트폴리오 운용 사정과 시장 여건 등을 고려해 결정될 예정이다.

기금운용본부는 이달 30일까지 지원 분야별 펀드 운용내역 자료 등을 접수 받고 예비 심사와 현장 실사를 통과한 후보 기관을 대상으로 위탁운용사 선정위원회 구성 심사를 거쳐 10월 중 위탁운용사를 최종 선정할 방침이다.

국민연금은 2024년 6월 말 기준 기금 전체자산의 13.8%에 해당하는 159조 원을 국내주식 부문으로 운용하고 있으며, 이 중 51.4%의 자산은 외부 전문기관을 통한 위탁운용으로 관리하고 있다.

서원주 기금운용본부장은 "이번에 국내주식 위탁운용사가 선정되면 국내 주식 위탁유형 전략 실행을 공고히 하여 중장기 초과수익을 창출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기금의 장기 수익성 제고에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김욱기 기자

구독 · 광고문의 063-288-9700

## 도내 9월 동행축제, 지역경제에 '활기'

### 26~28일 '익산 다다영등 열매' · 27~28일 '전주서부시장 가맥 페스티벌'

중소벤처기업부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청장 안태용, 이하 전북중기청)은 지역축제, 전통시장, 상권활성화사업단 등과 함께 진행 중인 9월 동행 축제가 많은 성원에 힘입어 성황리에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달 31일부터 펼쳐진 '생생마을 한가위 큰잔치', '무주 반딧불 축제', '장수 한우랑사과랑 축제'가 성공적으로 마무리 되었으며, 그 열기를 계속 이어가 지역상권·전통시장에서

축제를 통해 지역경제에 활기를 불어넣을 예정이다.

먼저 다다영등 열매 페스티벌이 26~28일 익산영등공원 및 다다영등 먹자골목 일원에서 개최된다.

초대가수들의 특별한 축하공연과 EDM DJ들이 함께하는 파티가 준비되어 있으며, 축제 기간 10%의 할인 행사와 누적 영수증 경품제공 이벤트도 기획되어 있어 깊어져 가는 9월의 가을밤 축제를 찾는 방문객들에게 다

양한 추억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한다.

다음으로 오는 27~28일에는 오후 6~11시까지 서부시장상점가에서 'The~좋은반짝 가맥축제'가 열린다. 다양한 먹거리와 고객참여 이벤트, 플라마켓 등 많은 행사가 더해져 초 가을의 밤의 정취를 더할 예정이다. 두 축제를 마지막으로 9월 동행축제는 대미를 장식한다.

/김욱기 기자

## 중기중앙회, '제3회 스테인리스 중소기업 혁신 아이디어 공모전' 시상식 개최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한국철강협회(회장 장인화)와 공동으로 24일 중소기업DMC타워에서 제3회 스테인리스 중소기업 혁신 아이디어 공모전 시상식을 개최했다.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등의 후원으로 개최된 이번 공모전은 올해 세 번째로 스테인리스 소재를 활용한 중소기업 혁신 아이디어를 발굴하여 대·중소기업 간 상생 협력 및 신수요 창출을 위해 마련되었다.

이번 공모전에는 총 14개 업체가 접수하여 시장성, 기술성, 혁신성, 컨설팅 필요성 등의 심사기준에 따라 1차(서류), 2차(발표) 평가를 거쳐 총 6개



사(중견 1개사 포함)가 선정됐다.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상은 고강도 SIS강을 활용한 액화수소 저장탱크를 개발한 △하이리움산업(대표 김서영)이 수상했고, 올해 신설된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상은 축사(돈사용 스테

인리스 비덕재를 개발한 △에스스틸(주)(대표 김재환)이 수상했다.

중소기업중앙회장상에는 스테인리스 비정형 지붕재 성형 및 설계 기술을 개발한 △쥬스틸라이트(대표 오성환)와 무용접 체결 방식의 스테인리스 관 이음쇠를 개발한 △쥬하이스텐(대표 김중재, 김국진)가 수상했으며, 한국철강협회장상에는 스테인리스 폴리우레아 복합관을 개발한 △쥬강(대표 박현숙, 방민혁)과 에어컨베이어용 스테인리스 저원가 브레이징 용접재료를 개발한 △쥬개창(대표 조시영, 조경호)이 수상했다.

/김욱기 기자

## 경진원, 호남권 투자유치 Matching Conference 개최

전북특별자치도와 전북특별자치도경제산업진흥원(이하 경진원, 원장 윤여봉)은 전북대학교 창업지원단 등과 협력하여, 도내 중소기업들의 IR(투자유치) 역량 강화를 위한 '호남권 IR Matching Conference'를 오는 28일부터 27일까지 양일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컨퍼런스에는 하나증권, 엑사콘벤처스, 한양리더스, 아이디어파트너스, (주)전북지역대학연합기술지주회사, (주)엠와이스설계퍼니, 케이부벤처스, 원투자파트너스(주) 등 약 50개의 주요 투자기관이 참여하며, 전북특별자치도 성장사다리 기업 15개사, 창업중심대학 Accelerating IR 프로그램 참여 기업 19개사 BI 컨소시엄 참여 기업 6개사 등 총 40개의 유망 기업이 참가한다.

행사 첫째 날에는 탐앤탐타트너스 주진영 이사의 '투자고도화 전략을

주제로 강의를 진행한다. 이어서 8월 22일부터 9월 24일까지 진행된 투자사와 기업 간 집중 컨설팅을 바탕으로 사전 제작된 IR 자료를 활용하여 추가 1대1 컨설팅이 이어질 예정이다. 기업들은 전문가들의 다양한 피드백으로 투자유치 가능성을 한층 더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둘째 날에는 IR 피칭대회가 열려, 참가 기업들이 실질적인 투자 유치 확약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이와 함께 기업의 판로 개척과 스케일업을 위한 새로운 기회를 모색할 예정이다.

경진원 윤여봉 원장은 "우리 자치도 내 기업들이 투자 유치를 통해 더욱 성장하고, 급변하는 시장 환경에 발맞추어 스케일업을 이루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욱기 기자



전주매일 환경캠페인

우리에게 큰 선물을  
안겨다주는 대자연  
가꿔나가야 합니다